

지자체의 개발의욕

요즘에는 '녹색(Green)'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인기가 높다. 그린 마케팅(green marketing), 그린 플랜(green plan), 그린 라운드(green round), 그린 르네상스(green renaissance) 등의 사회·문화적인 개념이 그렇고, 그린 소수 등을 비롯한 생활용품의 표지에서도 녹색이라는 단어가 지나치리만큼 우리의 주변에 넘치고 흐른다.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환경파괴를 암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스트레스없는 생활환경

생태학적인 역할과 기능 이외에도 자연환경은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이 가장 효율적으로 스트레스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은 자연환경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다.



이영경 <동국대 교수·조경학>

지자체 시대의 균형적인 국토개발 수 있는 감독의 수감자가 그렇지 않은 수감자에 비해 의료시설의 사용율이 낮다. 자연환경에서 발견되는 정보나 자극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다양화되고 복잡화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보존과 적극적인 조성은 시민들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다. 지자체 실시 2년이 된 시점에서 개발과 경제를 빌미로 자연환경과 역사환경이 무참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이미지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개발의 예는 전통사찰 주변의 아파트 개발사업, 윗막 개발사업, 석산개발, 폐기물 매립장 건설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대부분은 개발 우선주의와 관공편의, 지역적 우선주의에 밀려 사찰환경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개발과 관련한 환경훼손은 사찰이나 개발적인 문화·역사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미지에 따른다. 파스피르유럽은 '로히트' 분류를 8천4백원 받았으나, 리소진 등의 성분을 첨가한 '뉴로히트'를 출시하면서 1만7천4백원을 받고 있다.

학교폭력... 새싹까지 '비상'

피해 급증...계몽·단속차원 넘었다
가정-학교-사회 합심 인성교육 나서야

일본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범인이 10대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져 일본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용의자는 일본과 미국의 연쇄살인사건에 관한 책을 즐겨 읽어왔으며, "경찰 제군들이여, 나를 중지시켜 보라. 살인을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 의 무교육이 나를 변하게 했다. 학교에 복수하겠다"며 경찰과 학교에 대한 원한을 나타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가 호소문을 들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의 눈 "폭력은 성불과괴"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중기 이사장은 "학교폭력은 단계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사회전체가 청소년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교화연합회 조영환 사무국장은 "교사들이 지식만 전달하는 기능적 위치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의지가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는 사후에 아들의 학교앞에서 호소문 시위를 벌였다. '아들이 얼마나 아팠나. 네 몸에 피멍이 드는 순간 이 아빠의 가슴에도 피멍이 들었던다.'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상담실에 지난 한해 동안 접수된 피해사례 9백23건 가운데 여학생 상담건수가 3백26건으로 3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화된 학교폭력이 급기야 반사회집단화하고 있다. 기성폭력조직에 조직원 공급약탈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일진회라는 학생 폭력조직에 대해 범죄단체구성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도 28일 고건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를 신설, 8월 개학 전까지 학교내 불량폭력서를 완전히 뿌리뽑기로 했다.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음성적인 해결책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정성운 기자

지계 금주 파계

샷바느질 할머니 10억 쾌척

●...93년 샷바느질로 장만한 상가(시가 30억원 상당)를 장학금으로 내놓았던 이순옥할머니(85)가 30일 서울대병원에 "아픈 사람을 위해 써달라"며 10억원을 전담했다. "깨끗한 돈이니가 환자들을 위해 쓰면 효험이 있을거야" 서울대병원은 이 돈을 할머니의 호를 따 '좌승(坐松) 호흡기연구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삼성경제연 연구결과 공개

●...삼성경제연구소가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로는 처음으로 연구소의 모든 연구결과물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제공자료는 이 연구소 창립 이후 11년간의 연구결과물로 10만여 페이지(A4용지 기준)에 이른다. (www.seri-samsung.org)

'스포츠타운 바로잡기' 출간

●...음란폭력성조장매체 대책시민협의회가 <스포츠타운 바로잡기 시민운동백서>를 펴냈다. 백서는 유익하고 건전한 신문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90년부터 출간해 오던 '스포츠타운'과의 8년 전쟁을 결산한 것. 스포츠타운 불매운동 등 다양한 수용자운동 전개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아버지들 힘모아 도서실 마련

●...한 아파트에 사는 아버지들이 힘을 모아 아파트 지하공간에 도서실을 만들었다. 서울상도동 대림아파트 103동에 사는 상도여중 이창국교사를 비롯한 초·중등 교사 7명. 자녀들의 책을 사들이기 벅하다는 고민을 나누다 도서실을 만들었다.

장애인에 약값 30% 할인

●... '장애인 우대약국'이 등장했다. 마산지역사회는 장애인 복지시책의 하나로 '장애인 우대약국제'를 1일부터 실시, 지체 및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약값의 30%를 할인기로 했다. 마산시의 1백68개 약국이 모두 참여, 약국 유리창에 '장애인 우대약국'이라는 스티커를 붙였다.

부부교사 복독기 1천만원

●...30대 부부교사가 북한풍토품기에 써달라며 주택마련을 위해 모은 1천만원을 6월25일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해 뒤늦게 알려진 김기훈(마산 합포여중) 정진미(마산 북상초등학교)씨. "언론을 통해 북풍토품의 참상을 접한 뒤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내놓았습니다."

휴가-숙박비도 판공비인가

●...차지단체장이 여름휴가 때 사용한 호텔숙박비도 판공비인가. 감사원은 56개 지방자치단체의 94~96년 설의성경비를 특별감사 모두 4백25건 6백10억원의 위법사태를 적발했다. 서울 동대문구 의회사무국장 이모씨는 의정활동비 9백30만원을 구의원 부인들과 직원들에게 상공권을 사주는 등 변태집행했다.

운전학원 불법 잇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운전학원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6월 26일 불법단속을 벌여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거나 교육생 원부를 허위작성한 28개 학원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학원측의 불법행위 면허를 취득한 수강생들의 면허를 모두 취소키로 했다.

미장원서 불법의료행위

●...의료기구를 처치하고 살해기와 킷박스 등 불법의료행위를 해온 36곳의 미장원이 서울시에서 의해 적발돼 고발과 영장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소들은 미장원에 비만체형 교정기구 등 의료장비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살해기 시술을 해왔다.

유명식품업체서도 불량품

●...유명식품업체들이 제조한 식품이라도 마음놓고 먹을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6월 30일 파스피르유럽 삼양식품 동원산업 등이 제조한 1백21개 식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팔당호 수질 계속 악화

●...러브호텔과 음식집 공장 및 축산 등 수질오염원의 지속적 증가로 수도권지역 2천만명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팔당호 수질이 86년 이후 10년만에 최고로 악화됐다고 1일 발표. 팔당 일대 숙박·음식점은 90년 2천2백50개에서 지난해 9월 7천300개로 늘어났다.

가능성 분류 '값만 올려'

●...분류회사가 가능성 분류라는 이유를 내세워 기존분류보다 값을 두배 이상 올려놓는 등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따르면, 파스피르유럽은 '로히트' 분류를 8천4백원 받았으나, 리소진 등의 성분을 첨가한 '뉴로히트'를 출시하면서 1만7천4백원을 받고 있다.

우리 국악으로 지장경을 독송합니다!!

창작국악교성곡

가래동정곡

불멸에 피는 꽃은 '지장경'을 우리 말로 옮긴 창작국악교성곡이다. 억압의 불꽃이 타오르는 지옥에서 중생구제를 위해 애쓰시는 지장보살 그 모습은 한없이 정아한 연꽃이다. 저절로 참회와 지극한 기도. 그리고 현의 카타르시스. 이 곡은 국악과 양악의 적절한 만남 그리고 범람의 현대적 재창조로 산불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글/반영규·곡·지휘/김희경
합창/수원포교당 가톨릭합창단
중앙대 성악과 남성합창단
연주/중앙국악관현악단·피아노/함경아 특별출연/김성녀·김영민·성기훈
연정숙·한미경·덕신님

지구레코드 CD발매(2장) / 정가 17,000원 / 사설에서 대량 주문시 할인 가능
전국의 유명 음악사 및 조제사 앞에서 판매 중/문의 ☎ (0331)255-2692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雲藏)法師의 생필(眞本)

五色경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금강경, 범구, 다라니, 각종 불서, 병풍 —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教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事業실과 불행한사건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은분 난치병, 疾病에서 벗어나고 싶은분
◆ 神祕의 般若心經을 수지독송하면은 부처님의 神通한 영명이 있습니다.

전국 佛子가정에 1本色 보 ● 선착순 한정본(●) 주문 신청방법
시합니다(단체주문은 사절)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 모신사에 속지 마세요.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작가약력
· 중화민국 문화대학 국제서법전 진과정 수료
·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 중화민국 서법교육학회초청 국립공공박물관에서 창작미술 대상수상
· 대한민국 89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심사위원장
· 대한 국립공공박물관 소장 물품(약70만원)조서는본 발표
· 고 미술서법학회 회장 · 한국 불교문화예술원 원장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硏究會
☎ (02)242-0331 · 242-0255 (야)216-0307

천축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 옥산가 옥 목걸이 착용 10분후 색은 검은 분광파장이 활발하다
연속 사용시 1.5w 연속사용후 3.0w로 체내진입 상승

암과파(가) 원인으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200여종의 뇌노르르르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정혈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두통, 불면증, 심장병, 귀울림, 치매, 신경병,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햇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에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결과
중국대 단행된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효
과를 기록했다. (93.2.17 서울신문)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시적 본부(1)에 전유는 백열등 대신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레멘방 매화점 지하상가 입구)
천축산가
777-0105 (우편번호가)

국제 국내 전화교환직

전화교환사가 정보기운운기능사로

※ 근무조건 ※
하루8시간 근무, 오전·오후 선배, 독립된 공간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지않고 자유롭게 근무하며 특히 유아유아를 위해 업체마다 탁아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호취외 가능한지는 국제 교환사로 전환할수 있다. 보너스80%, 급여가 약7~8만 주임근무

■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당선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근거리에서 인정되고 평생 직장을 원하시는 (남·여) ■ 뛰어난국문독일어일본어대기업,은행,백화점, 외국인회사,관광호텔,학교, 종합병원,항공회사,연세기관등...
■ 시·항정보기운운에 대한 4차로 60점 합격(100%적합)

전문화시대를 지향하는
한국통신직업교육원 ☎ (02)725-1009

공무원 좀더 쉽게 공부 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

보건직

기운미운여성 구별없이 정부에 여성고용 목표에 따라 합격여부 인정되고 보정된 수임을 가져오는 최고인기 공무원 시험...

취업을 희망하는 분 지금 시작하세요

주부로서 공무원에 관심있는 분 · 간호사 및 간호보조사 · 종교인들
· 요즘 과대 광고 또는 교재와 상호가 일치하지 않고 교재만 판매 하는 업체가 많으니 절대주의 하시길
· 남공입대, 위생병을 원하시는 분 · 졸업생 많은 학생분들

현업의 밑일이 썩어 100배의 결실. 080-010-4100
학 보건직교육원 ☎ (02)299-5238